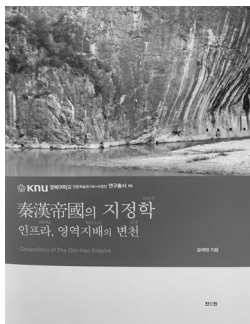


秦漢帝國의 지정학 인프라, 영역지배의 변천

김진우*



저자: 김재원

출판사: 진인진

출판연도: 2023

분량: 368쪽

I.

대학에서의 중국사 강의 첫 시간, 중국의 인문·자연지리를 설명할 때 보통 ‘서고동저’의 세 계단 지형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계단에 해당하는 위수 분지 즉 관중에 자리 잡은 정치세력이 사천 분지까지 아우르면서, 세 번째 계단의 저지대 평원 지대를 정치·군사적으로 압도하는 형세가 중국 고·중세 역사를 관통한다는 식의 설명을 이어가곤 한다. 이러한 이해는 일찍이 1933년 푸쓰넨[傅斯年]이 지형의 이점을 가지고 무력이 우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연구교수
e-mail: woohist@hanmail.net

세했던 西高地系와 경제·문화·사상 등에서 더 우월했던 東平原區 사이의 대립과 투쟁을 도식화한 ‘夷華東西說’을 제기한 이래로 많은 논쟁이 있어 왔던 부분이다. 어쩌면 중국고대사에서는 상식적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많은 질문들이 맴돌고 있다.

그리고 중국고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현격한 고지의 지형 차이를 보여주는 동서의 지리가 어떻게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는가? 경제·문화가 더 발전했던 지역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낙후된 세력에게 압도될 수 있는가? 등등의 질문은 결국 관중에서 시작하여 중국 문명 최초의 제국 질서를 형성한 ‘秦漢帝國論’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전통시대부터 근대 역사학에 이르기까지 진과 한 두 제국에 대한 수많은 담론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20세기 이래 특히 1975년 운몽수호지진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진한 출토간독 자료에 힘입어 보다 다양하고 심층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세기부터 백여 년의 중국고대사 연구 흐름을 대별해 봐도, 왕귀웨이[王國維]가 일찍이 “새로운 학문은 새로운 발견에서 시작한다”라고 했던 말이 실감날 정도로 최근 중국고대사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두드러지게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발견에서 새로운 학문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도 필요한데, 이는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이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실정이다.

그러한 모색의 길을 찾는 노력의 결과 중 하나로 『秦漢帝國의 지정학 인프라, 영역지배의 변천』(진인진, 2023)이 있다. 이 책은 상양변법 이래 한 무제까지 진한제국 형성의 역사에 대해 저자가 지리에 기반한 인프라스트락처라고 규정한 인적·물적 하부구조를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장악해 가면서 영역지배 즉 군현지배를 완성해 가는지 쫓아가고 있다. 그 과정은 관중에 기반하는 진한 두 왕조가 나머지 지역을 일방적으로 장악해가는 일직선의 외길이 아니었고, 진한이라는 관중 세력에 대항해서 그 대책점에

위치했던 또 다른 역사의 주체로 전국 이래의 육국이나 한초의 제후국 등이 실존했다. 이 역사의 힘들이 서로 하부구조를 장악하기 위해 겨루는 상호 작용으로 이해할 때, 명실상부 저자가 언급하는 다이내믹스로서 ‘지정학(GEOPOLITICS)’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접근법은 거시적인 시야는 물론이거니와, 미시적인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드러내어 진한제국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유효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시각으로 진한제국의 실체에 접근하기에는 저자만큼 적합한 연구자도 드물 것이다. 저자는 일찍이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후 중국고대사의 주무대이자 진한제국의 본거지였던 섬서성 서안 소재 서북대학 역사학원 교수로 수년간 재직했다. 역사 연구에서 연구실의 책상만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답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부언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 저자가 책에서 서술하는 내용들이 모두 책상머리에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일일이 실제 현장을 답사하면서 보고 느낀 점들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서안에서 위수를 건너 서북쪽으로 인접한 함양으로 가면서 한대 장안성의 위수 교량을 생각했을 것이고, 남으로 쪽 내려와 진령을 넘어 한중을 오갈 때는 진한대 잔도의 노선을 그려 보았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현장의 경험들이 저자의 지리 인프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 결과가 이 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또한 저자는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저자의 연구 이력에서 한국 학계와 중국학계에 대해 공히 외부인의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기존의 지배적인 학계 담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객관화된 시야는 이 책의 곳곳에서 표출되면서 바로 저자의 연구 창발성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모두 총3부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秦帝國 ‘新地’정책의 배경과 전개

- 제1장 戰國시기 秦의 영토 확장과 장기 국면의 형성
- 제2장 新地와 秦地의 경계
- 제3장 ‘楚人’과 ‘秦人’ 정체성의 경계-南郡의 사례
- 제4장 ‘新地’ 吏員의 구성과 그 한계
- 2부 ‘漢承秦制’의 경계-前漢 前期의 關外郡
 - 제5장 漢初 ‘關外郡’의 設置와 그 源流
 - 제6장 郡國 대치의 전초-黃河 沿線 지역 郡縣
 - 제7장 남방 郡縣 확장의 기반-南郡과 주변 지역
 - 제8장 鴻溝 水系 교통의 재건-梁楚 지역 郡國의 변천
- 3부 秦漢帝國 首都 인프라의 구축과 역학(Dynamics)
 - 제9장 咸陽-長安 渭水 교통과 수도 권역 관리
 - 제10장 長安-洛陽 수도 권역 변천의 하부구조

II.

저자는 먼저 진제국은 전국 이래 진이 구축한 지정학의 연장된 국면이라는 관점에서 1부 「秦帝國 ‘新地’정책의 배경과 전개」를 4개의 장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진 효공기 상양변법(B.C.350)을 기점으로 진시황의 통일(B.C.221)에 이르기까지 130여 년에 걸친 전국시기 진의 영토 확장을 대략 ‘巴蜀’ ‘三晉’ ‘楚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商君書』 중 「徠民篇」을 長平戰(B.C.260) 이후에 서사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를 통해 秦은 파촉 및 초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점차 ‘地小民貧’에서 ‘地廣民寡’의 상황으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한다. 이중 파촉은 인구 유출도 거의 없었고 장기간에 걸친 교통 인프라의 구축과 군현제의 안착 등으로 일찍이 秦地가 되었다. 반면 江漢유역의 초지는 진에 정복되면서 江淮·江南 등으로 격렬한 인구유출

을 겪었고 잔류한 초 유민은 秦이 설치한 南郡의 편호민이 되었으며, 삼晉 지역도 점진적으로 진에 영토를 잠식당하면서 대량의 인구 이동이 있었다. 그 결과 진은 압도적으로 邊地에서 中原을 압박해가는 형세를 구축할 수 있었지만, 인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地廣民寡’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진은 육국을 정복했지만 서로 다른 인구 이동의 경험과 반진 정서, 군현지배 및 교통인프라 구축의 상이한 기간 등이 작용하여, 진제국의 영토는 장기간 진의 군현지배를 받은 ‘秦地’와 짧은 통치 기간을 보낸 구육국 지역의 ‘新地’간에 불안정한 국면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른바 ‘新地’는 『里耶秦簡』 『嶽麓秦簡』 등 근래의 진제국 시기 진간독 자료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용어이다. ‘新地’는 진시황의 통일을 전후하여 새로이 편입한 구육국 지역을 가리키는데, 진간독에서 ‘新地’와 관련된 다수의 율령 조문이 나와서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나온 간독자료를 충실히 분석해서 당시 ‘秦地’와 ‘新地’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어 경계를 이루었는지 고찰하고 있다. 먼저 기원전278년 진은 초의 도읍 郢이 소재한 장강 중류의 江漢지역을 점령하고 南郡을 설치하는데, 이후 진 통일까지 50여년이 흐르면서 南郡은 진 통일기에 비로소 초의 멸망과 함께 설치되어서 ‘荊新地’라고 지칭되는 강남의 洞庭郡·蒼梧郡과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즉 南郡지역은 일부 초문화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南郡지역과 그 거주민은 ‘故地’ ‘故民’으로 인식되어 새로 편입된 초지역의 ‘荊新地’와는 다른 방식의 통치가 실행되고 있었다. 한편 중원 일대의 ‘新地’는 최근 공표된 『악록진간』(7)의 율령간을 중심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데, 전국말까지는 대체로 기원전242년 설치된 東郡까지 秦地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원전221년 이후로는 기원전228년 趙를 멸망시키고 설치하는 清河郡·河間郡·恒山郡이 新地에서 제외되고 故地에 포함된다. 또 진율령에는 ‘東故徼’ ‘河間故徼’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이는 ‘동군에

있는 고요' '하간군에 있는 고요'라는 의미로, 故地로 전환된 郡의 경계에 방어 시설인 고요를 구축하여 그 외부를 新地로 구획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원전228년 趙 멸망 이후 정복된 육국은 대체로 6년을 기한으로 순차적으로 新地의 경계가 완화되면서 고지로 전환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고지와 신지는 고요라는 방어 시설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자는 『수호지진간』 등에서 南郡지역 楚遺民의 '反秦情緒'를 읽어내는 시각에 의문을 표하면서, 진 점령 이래 南郡은 『수호지진간』 「語書」에 '惡俗'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위험 요소가 없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荊新地の 불안정한 상황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보았다. 진 천사민과 초 유민 등 다층적으로 구성된 南郡지역의 인구는 50여 년 진의 통치를 받으면서 모두 진의 편호제민 즉 '秦人'이라는 정체성을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반면 일부 '邦亡荊' 즉 초지로 이탈하는 '反秦'의 사례나 전쟁의 종식을 희구하는 '反戰'의 요구 등 다양한 南郡民의 정서가 발현되기는 하지만, 이는 진으로의 귀속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荊新地の 명확한 '反秦'과는 구별되는 남군 고유의 지역성으로 더 이상 남군 지역을 전형적인 楚地로 규정할 수 없는 진의 확장과 초의 쇠퇴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자는 신출 진간독에서 등장하는 '新地吏' '新黔首' 등의 용어를 분석하여 진의 '新地' 吏員의 구성과 그 한계를 고찰하고 있다. 진 율령간의 내용을 보면 '新地吏'는 면직이나 파면, 고과 부진 등의 사유가 있는 故地 관리에 대해 징벌성의 성격을 가지고 일정한 근무 기간을 정해서 新地에 임명된 吏를 지칭한다. 다만 新地로 파견된 吏에는 징벌성 좌천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전근한 吏員도 포함하는데, 아마도 인사가 지체되어 승진을 조건으로 파견가는 경우를 추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新黔首인 현지인을 임용하는 부류도 있다. 이 경우의 다수는 신지 군현의 양성 체계

에서 배출되었을 것이다. 신지의 현급 이원은 질급의 고하에 따라 長吏, 有秩吏, 少吏로 구분되는데, 현지채용형 이원은 대부분 기층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질급을 보유한 상태에서 파견은 고지 출신 신지리와는 애초에 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원 구성원 간의 불균형은 점령자와 피점령자의 관계로 인한 격절과 갈등의 정서를 관료 사회 내부로 전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은 실제로 진말 신지에서 豪吏들이 대거 등장해서 반진 봉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豪吏는 대개 신지의 현지채용형 이원으로 주로 유질리 혹은 소리였는데, 반진 봉기가 일어나자 향리사회와 결탁하고 임협이나 구귀족세력과 연대하여 오히려 고지에서 파견 온 진의 長吏를 제거하기도 했다. 이처럼 진말 현지채용형 이원의 호리로의 성장은 표면적으로 완성된 진의 군현지배가 장리와 호리 간의 정서적 격절로 인해 취약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의 신지 정책은 한제국의 關東 정책으로 이어지며, 이른바 전한대 ‘酷吏’도 진대 법치주의에서 강조하는 ‘良吏’와 다를 바 없어서 진과 한은 표면적으로는 단절되었지만 실제 연속되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

III.

2부 「漢承秦制」의 경계-前漢 前期의 關外郡은 4개의 장으로 구성해서 秦制를 계승 발전시킨 한의 군현을 대상으로, 특히 한과 제후국의 경계 영역으로서 關外郡에 주목한 내용이다.

한고조 유방은 천하를 통일하고 관중을 중심으로 秦制를 계승하지만 역량의 한계로 전면적인 군현제 대신 군국제를 선택했다. 張家山漢簡의 二年律令·津關令 조문을 보면 한초 한조정 직할 군현과 제후국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었다. 다만 臨晉關·函谷關·武關·鄭關·扞關 등 五關을 경계로 하는 관중과 관외의 구분은 제후국이 아니라 關中과 關外郡과의 경계를 설정한 것이다. 관외군은 관중과 제후국 사이의 완충지대로 한조정이 관할하는 군현이었다. 관중과 관외군 간에는 인원 및 마필이 통제되기는 했지만 봉쇄되지는 않은 반면 관외군과 제후국 사이는 원천 봉쇄하면서 관련 율령의 처벌도 엄격했다. 그래서 한초 군국제는 군현과 제후국의 구분 이외에 군현 간에도 관중과 관외군의 구분이 존재하는 이중구조였고 관외군은 한의 내지이면서도 변경적 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의 관외군은 전국말까지 진이 관외 지역의 秦地에 설치한 군현과 거의 일치한다. 진의 관중에 비해 한초의 관중은 파촉까지 포괄하는 ‘大關中’의 영역으로 확대되며, 전국말 변경 방어시설이었던 ‘邊塞’와 ‘徼’는 진 통일 후 內境이 되어 ‘故塞’ ‘故徼’로 지칭되었고 한대에는 한의 군현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었다. 그리고 ‘徼’를 경계로 한 율령은 한율이 진율에 비해 더 엄격했는데, 이는 한 군현 지역의 인력과 경제력을 보존하고 특히 관외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한초 관외군은 관중에 대한 이중 방어선으로 구축된 것으로, 전국시기 진의 영토 확장 과정에서 진행된 국경의 연용과 변용의 결과물로 이 역시 한승진제의 한 측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관중 방어 및 관외로의 확장을 위해 관외군은 한중양이 반드시 직할해야 하는 영역이었다. 전국시기 진이 관외군을 설치하면서부터 육국을 압도했듯이, 관외군은 제후국에 대해 한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강역이기도 했다.

진·한초 관외군 중에서도 황하 연변의 군현에는 河와 관련된 津·關·塞 등 교통 거점이 광범하게 소재하고 있다. 진은 진왕정 즉위 후 여불위 집권 시기 황하 노선을 따라 영토를 확장하면서 河內郡·東郡·潁川郡 등을 설치하여 황하 연변 일대의 河津을 특별 관리함으로써 육국 연합세력을 분열시킬 수 있었다. 반대로 진말 해당 지역을 진이 상실하면서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한도 최소한 여불위 집권 시기 진이 확보했던 지역까지는 직할하고자 했고 그러한 의지의 결과는 二年律令의 秩律과 津關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관령은 고조 9년에서 여후 2년까지 누적된 법령으로, 특히 ‘越塞關關令’은 惠帝 즉위 후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즉 황하 연변 관외군에 집중된 津關의 출입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한 것은 황위를 계승한 2대 황제의 재위 기간 중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고, 또 여후 집권 후 유씨 제후국과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서 여씨집단의 권력을 비호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진·한초 관외군의 설치는 황하 연변의 津·關과 같은 물적 하부구조 및 풍속의 통제와 같은 인적 하부구조를 필요조건으로 하는데, 중원 지역의 서로 얽힌 지정학은 군현제로 일괄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다단했다.

이에 비해 남방의 관외군인 남군은 상대적으로 긴요함이 덜해서 초한 전쟁이 종결된 후에야 한의 군현으로 편입된다. 그럼에도 그 과정은 중원보다 훨씬 전격적이고 성공적이었는데 이는 진의 오랜 군현 통치로 물적·인적 하부구조가 모두 갖추어진 順治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즉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漢承秦制’가 남군에서 발현되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남군 지역은 項羽의 18제후왕에 분봉되는 共敖의 臨江王 영역에 속했지만, 항우 패사 후 임강왕은 숙청되고 다시 군현 체제를 회복했다. 한의 군현으로서 남군의 인구는 진대와 큰 차이 없이 모두 이전 진 호적에 근거해 다시 편호민으로 귀속되었다. 남군은 대규모의 반진 기의도 없었고 초한 전쟁 시 한에 종군한 이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남군 거주민의 軍功賜爵은 증명하기 어려운데, 이는 남군이 秦地로서 다른 구육국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지녔음을 반영한다. 남군은 江南과 江淮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이어서 한은 이 지역을 반드시 직할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통해 강남·강회 지역으로 군현제를 확대해 간다. 즉 한초 남군에 속했던 동정호 주변을 武陵郡과 長沙郡으로 재편해서 한초 오예의 장사국 수도를 단절하

고 한의 직할 역량을 강화한다. 또 漢水 以東에 위치한 安陸城은 전국 楚 이래의 대형 縣城이었는데, 진이 점령한 후에도 폐치되지 않고 전한 전기까지 연용되었다. 이는 전국 진에서 한초까지도 계속 구육국 혹은 제후국과의 대치 국면이 장기 지속되면서, 안륙성이 남군의 대육국 혹은 제후국 방어를 위한 前進 據點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사적 기능은 관외군으로서의 남군의 지역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은 무제 元狩2년(B.C.121) 江夏郡 설치를 기점으로 변화가 발생한다. 이 시기 郡國 대치 국면이 종료되면서 남군의 변경적 특성 또한 소멸되었을 것이다.

한 건국 후 梁楚지역은 제후국인 양국과 초국에 속했는데, 황하에서 발원하는 홍구 수계는 회수로 유입되면서 양초지역 전체를 관통했다. 전국시기 위가 구축한 홍구는 전체 수계의 치수와 수운의 핵심 기체로서 양초를 회수 이남의 오와 연결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군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한 전쟁에서 항우는 홍구 수계를 따라 보급로를 확보했으며, 반대로 유방은 이 수계의 종점인 滎陽·成臯를 사수하면서 그 후방 노선을 교란하여 결국 항우에게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홍구 수계의 연결 혹은 차단 여부는 한초 장기 지속되는 군국 대치 국면에서도 관건이 되었다. 따라서 한은 점차적으로 홍구 수계 연변의 교통로 상에 군현을 설치하면서 제후국 간의 연결을 차단하게 된다. 지속적인 군현 설치를 통해 홍구 수계의 인프라를 장악해감으로써, 한은 군현지배를 완성하고 제국체제 유지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다. 한초 「二年律令·秩律」의 내용을 보면 문헌사료에서 전하는 이 지역의 연혁과는 달리, 한은 이미 홍구 수계 동쪽의 일부 지역을 직할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한은 제후국의 홍구 수계 연결을 억제하고 제후국에 대한 방어선을 이룰 수 있었다. 그 결과 오초칠국의 난 때에는 제후국과의 전선을 형양·성고에서 동쪽으로 양국 내 棘壁·昌邑 일대에 구축할 수 있었다. 오초칠국의 난을 진압한 후 한은 홍구 수계의 끝단인 淮四口까지 직할하게 되면서 양초지역의 郡國은 일대 전환이 발생한다.

홍구 수계 상류에 陳留郡, 중류에 沛郡, 하류에 臨淮郡 등을 설치하면서 양초지역의 제후국은 서로 격절된 旣 軍현으로 완벽하게 포위되는 형세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양초지역의 수로 교통은 형양으로 수렴되어 낙양과 이어지고 함곡관을 넘어 渭水를 통해 장안과 연결된다. 이렇게 장안에서 제국의 끝단을 잇는 교통 인프라가 완비되면서 군국제는 점차 군현제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이다.

IV.

3부 「秦漢帝國 首都 인프라의 구축과 역학(Dynamics)」는 2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한제국의 하부구조 완성 과정을 수도 지역의 교통 인프라 구축과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초 장안은 興樂宮·章臺와 같은 위수 남안의 진 별궁을 그대로 사용했다. 기존 연구는 한의 장안이 진 함양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했지만, 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저자는 진의 도성에서 연속되는 측면을 살펴보고 있다. 한 장안성은 渭南지역에 위치하지만, 위수의 교량을 통해 渭北도 총괄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위남의 龍首原 서북 능선에 자리한 미양궁과 장락궁은 위북의 함양궁과 마주하면서 중앙 위수 연안 저지대를 내려다보는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장안성의 北三門(橫門, 廚城門, 洛城門)은 위수를 따라 橫橋·渭橋 등 교량을 통해 위북지역과 긴밀히 연계된다. 장안성 내 東·西市는 서북쪽에 치우쳐 있지만, 위수의 교량과 인접해서 장안성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한 장안성의 이러한 특징은 ‘渭水貫都’라는 진 함양 도성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진 함양의 수도 구조를 계승한 한 장안은 무제 元鼎3년(B.C.114년)까지 유지되었는데, 이렇게 위수 양안을 둘러싸는 도성 설계는 근래 위수 교량 유적의 발굴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기존 연구는 황문 밖 황교가 장안성에서 위북 진 함양 지역으로 직통하는 유일한 교량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교량 유적지가 廚城門과 洛城門 일대에서도 발견되어 한 장안성에는 황교 외에도 위수를 통과하는 교량이 더 많았음이 확인된다. 한대 위수 교량의 실재와 후대 문헌 기록이 다른 것은 당대 사료에서 언급하는 ‘渭水三橋’설로 인해서이다. 당대 장안성은 위수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용수원 이남에 건설되어서, 위수 양안의 교통이라는 측면에서는 한 장안보다 간편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渭水貫都’를 목적으로 한 교량은 점차 폐기되었고 전래 문헌에서는 당대 사용한 세 교량만 기록하게 된 것이다.

위수 양안을 연결하는 교량 외에 수로를 이용한 조운 또한 위수 교통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저자는 위수의 교통에서 더 나아가 관중 지역의 조운망, 그리고 관동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기축 인프라의 문제로 시야를 더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저자는 장안-낙양 수도 체계의 양대 인프라인 진령 교통망과 황하 교통망에 주목하여, 그 변화에서 한제국 수도 체계 변천의 기본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장안의 수도 체계는 진령 교통망을 기반으로 했지만, 무제 시기 황하 교통망이 전면적으로 확장되어 연결되었다. 이때 漕渠의 개착, 함곡관의 이동, 홍농군의 설치, 동관 일대의 京師倉과 京輔都尉와 船司空縣의 설치는 모두 위수-황하 교통망 연결과 관련된 조치였다. 또한 司隸校尉의 감찰 구역에 河內·河南·河東 등 三河지역을 포함한 것은 황하 교통망의 확충과 경기 지역의 일체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삼하 지역을 단순히 경사의 외연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무제 이후로 경기 지역의 확장 추세는 수도 기반 인프라의 비중이 진령 교통망에서 황하 교통망으로 전이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하부구조의 변동 추세에서 결국 후한은 수도를 낙양으로 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는 이렇게 교통 인프라의 기축 변화를 중심으로 진한대 수도 권역의 역동적인 변천을 분석하면서, 진령

교통망과 황하 교통망의 주요 목적은 당시 양대 경제 중심지였던 화북과 사천지역을 수도와 연결시키는 것이었으며, 결국 경제적 효익이 수도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결론내린다. 漢唐 간의 역사로 시야를 확장해도 이러한 구도는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진한에서 수당에 이르기까지 수도는 장안에서 낙양으로, 다시 낙양에서 장안으로 옮겨오는 주기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V.

사실 지정학적인 연구방법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지정학 [Geopolitics] 자체가 19세기 제국주의나 20세기 나치즘의 ‘레벤스라움’에 복무한 혐의가 없지 않다. 즉 ‘강자의 논리’가 되거나 ‘결정론’에 매몰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또한 21세기 중국의 부상과 일대일로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중국포위’ 전략은 이른바 ‘지정학의 귀환’이라고도 회자되면서, 바로 지금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과거의 중국을 지정학으로 접근하는 방식에는 자칫 현재의 중국이 투사되어 역사상이 일그러질 수도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중국 역사를 이해하는데, 장기지속적인 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이 고정불변이 아니라 역동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동하는 지정학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방식은 오히려 ‘먼 과거’인 중국고대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어쩌면 더 유효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지정학적인 유효성의 성과를 거둔 역작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달리 말하면 ‘진한제국 형성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국시기부터 한제국까지 인프라의 장악 과정을 통해 연속적이고 계승적인, 그러면서 앞서의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

운 길을 찾아가는 ‘漢承秦制’의 지정학을 그려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연구가 앞으로 더 진전되었으면 하는 점을 언급하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책은 수도를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망을 갖추어 지정학적인 영역지배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제국의 내부 질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또 다른 제국의 요체는 국방으로, 즉 제국의 ‘外境’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지 지정학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한제국은 흉노를 비롯한 북방민족에 대한 방어선으로서 外境의 형성, 유지에 국력을 기울였고 이는 서북지역의 漢簡을 통한 인프라에 기반한 변경의 일상들에서 확인된다. 앞으로 제국의 수도에서 변경의 外境 방어선까지 교통 인프라망이 어떻게 구축, 연결되고 邊郡지역에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어떻게 채워 넣는지 등의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참고문헌 |

李成珪, 『中國古代帝國成立史研究-秦國齊民支配體制的 形成-』, 一潮閣, 1987.

傅斯年, 「夷華東西說」, 『傅斯年全集』제2책, 台北: 聯經, 2017.

임중혁, 『고대 중국의 통치메커니즘과 그 설계자들: 상앙, 진시황, 한고조』, 경인 문화사, 2021.

이호철, 「중국의 부상과 지정학의 귀환」, 『한국과 국제정치』33권1호, 2017.

